



변액연금의 출시와 외자 및 합작 보험회사의 적극적 진출

왕양비 연구원

■ 5월 중순 중국 보험감독위원회의 변액연금 시범도입 결정 이후 6월 20일 합자회사인 금흥보험 (AXA-Minmetals*)이 최초로 변액연금상품을 출시함.

- 5월 10일 보험감독위원회는 베이징, 상해, 광저우, 선전, 샤먼 등 5개 도시를 우선대상으로 변액 연금을 시범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, 회사 자격과 판매사 자격, 판매채널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마련했음.
- 보감위의 규정에 따르면 변액연금의 판매금액은 해당 회사 실질자산의 4배 혹은 80억 위안(약 1.3조 원) 이하, 보험기간은 7년 이상이어야 하며, 이러한 규정 하에 금흥보험(AXA-Minmetals)이 판매한 변액연금의 수입보험료는 9억 위안(약 1,500억 원), 보험기간은 7년인 것으로 전해짐.

* Minmetals는 중국 광업의 거두 '五矿集团(오광그룹)'을 가리키며, 세계 500대 기업에 해당됨.

■ 변액연금 관련 리스크관리 노하우가 부족한 중국의 대형 보험회사는 아직까지 변액연금시장 진입에 대해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, 리스크 헤지에 우위가 있는 외자계 보험회사와 합작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임.

- 보험회사는 주로 옵션매매를 통해 주식시장의 하락 리스크를 상쇄하거나 고정비율 포트폴리오 보험전략(CPPI) 등의 투자전략을 활용하여 변액연금의 원금보장을 확보하는데, 현재 중국은 옵션시장(option market)이 도입되지 않은데다 주가지수 선물거래도 도입된 지 1년에 불과한 실정임.
- 이에 따라 적절한 리스크관리 전략을 통해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 보험회사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어 중국 생명보험 상위 5개사 모두 변액연금시장 진입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.
- 반면, 금흥보험은 자사의 국제 헤지펀드회사를 통해 유럽옵션(European options)을 매입하여 피보험자의 개인계좌를 관리하기로 하였으며, MetLife, Citic-Prudential 등 외자계 보험회사와 합작 보험회사의 변액연금상품도 심사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짐.

(시나 재경 등 6/21)